



##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는데, 또 다른, 실은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즉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대 초 이래로 미·중 갈등이 고조돼 왔다. 대만해협 문제, 반도체 경쟁 등 지정학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모두 그랬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갈등을 더 자극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포위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을 결속시키려 해 왔다.(인도와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중환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번 한일 합의를 발표하면서 거듭 언급했던 "보편적 가치 연



대"는 미국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서는 자국 중심의 '민주주의' 동맹을 가리켜 사용해 온 표현이다.

미국에게는 특히 일본이 중요하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중추 동맹국인 동시에, 일본 자체도 중국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3위의 제국주의 국가이다.

최근 일본은 엄청난 군비 증강, 적 기

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선언 등 재무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고려 때문에 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을 때 중재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은 한국이 양보하게끔 압박을 가했다.

이것이 합의 발표 직후 바이든이 이

례적으로 한밤중에 입장을 내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일 양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극찬한 이유다.

3월 16일 윤석열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강제동원 합의의 '성과'를 재확인하면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을 것이다.

## “굴욕 외교?” 서방 제국주의 편에 서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합의를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는 주장들이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단지 미·일의 압력에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에 적극 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과 이익은 완전히 내동댕이쳐졌다.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됨으로써 그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자 한다. 특히, 안전 보장은 한국 지배계급이 미국과의 동맹을 바라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동맹 일변도가 아니라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국익'(실은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 자체는 발전·강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균형 잡기 식 입장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갈수록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주당 정부들은 군사·지정학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중시했다. 문

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이므로 존중한다고 했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옳지 않고 곤혹스럽다”며 반대해 법원의 배상 강제집행을 중단시켰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의 이러한 실천은 이번 강제동원 합의가 단지 윤석열 정부의 친일·굴욕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서방 제국주의 지지 방침 문제임을 보여 준다.

###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한미연합훈련은 대중·대북 위게임, 제주 제2 공항 추진의 목적,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대규모 파업, 김건희 특검,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거짓말에 속지 말라

# 임금 억제하면서

#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일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악안은 연장근로 단위가 1주일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장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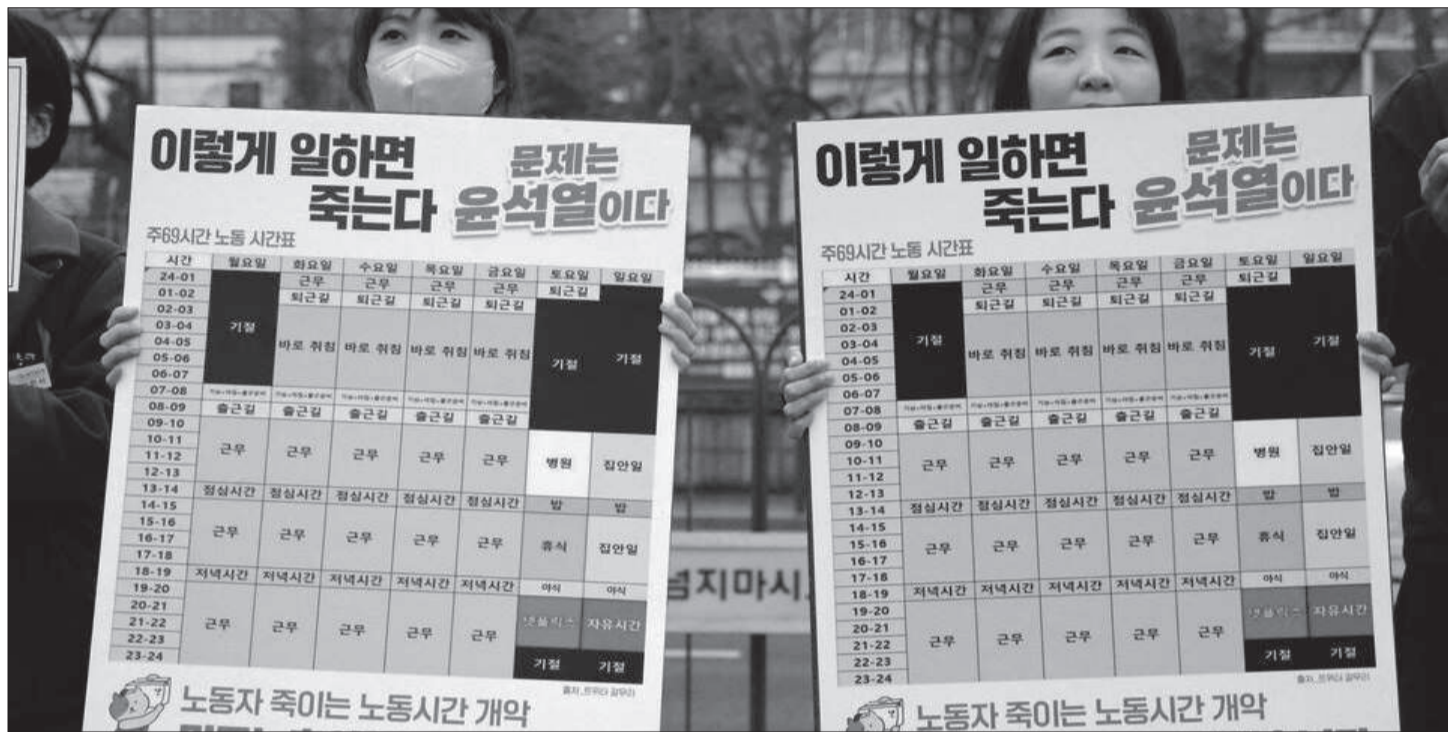
개악안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산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개악안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용자의 통제·결정에 기반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일할 장소, 시간, 작업방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마르크스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개악안은 오히려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 주는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조차 1주 하루 휴일을 전제한 보수적 산정치일 뿐이고, 주휴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도 의무 규정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도록 개악하겠다고 한다. 64시간은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인데 말이다.

### 선택권 보장?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일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일감이 줄 때 휴가로 대체·활용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댄다(휴가 사용권 확대).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휴가란 노동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사회·문화적 생활

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취지라면, (임금 등 근로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거나 낮은 임금을 벌충하려고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부여되고 있다.

“연차휴가도 못 쓰고 있는데 (장기) 저축휴가를 쓸 수 있겠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시기에 압축적

으로 장시간 일을 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또, 집중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용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일감이 적을 때 장차 휴가로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노동시간 개악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배계급이 떠는 공세이다. 임금은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늘려 착취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이는 생계비 위기 시기에 노동계급에게 더한층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육체·정신 건강이 피폐해지고 여가·정치 활동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온라인 토론회** 매주 수요일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인공지능 AI 이 인간을 대신할까?**

3월 15일(수) 오후 8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생중계

발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question.to.ws.tv@gmail.com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